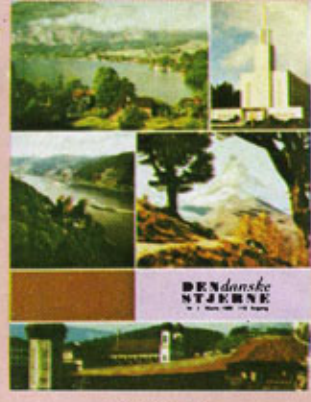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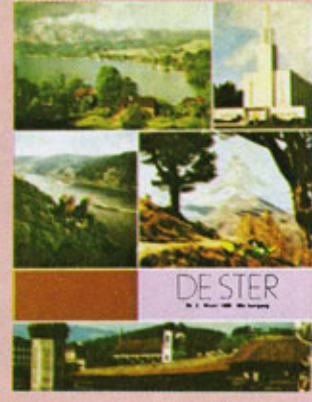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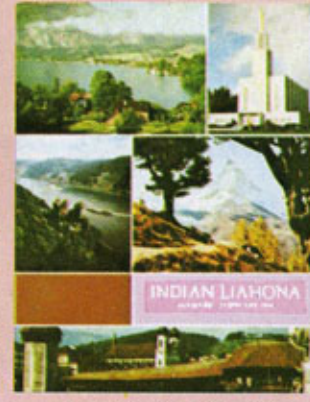
중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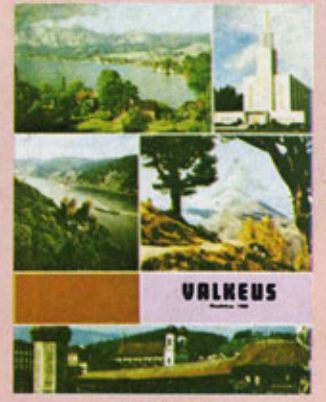
덴마크어



네델란드어



미국인디안(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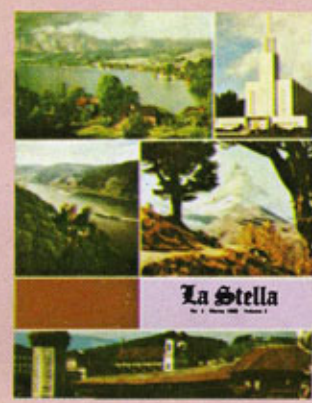
핀란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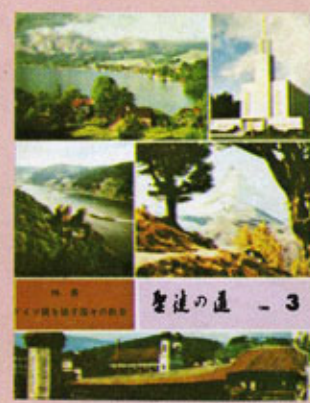
불란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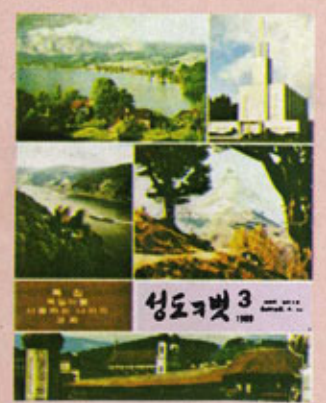
독일어



이태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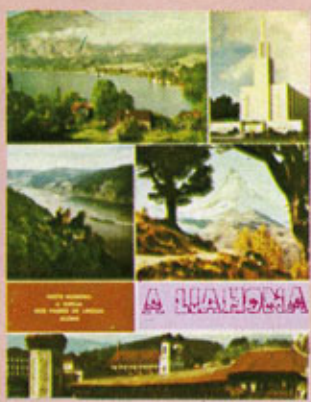
일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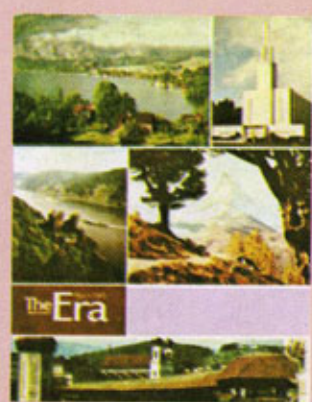
한국어



노웨이어



포르투갈어



임프르브먼트 이라

17 나라의
종합 잡지 - 성도의 별
3 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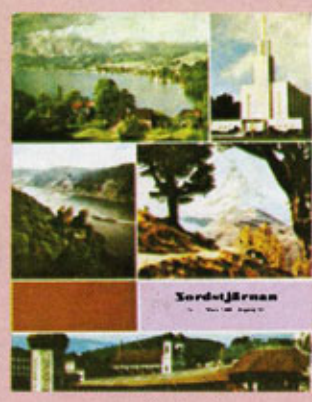
성도의 별 1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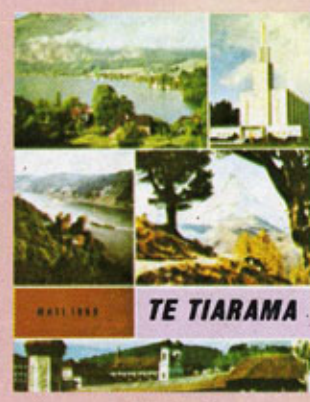
사모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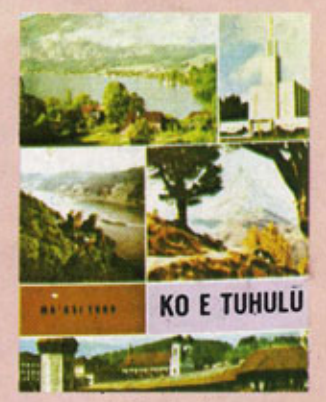
스페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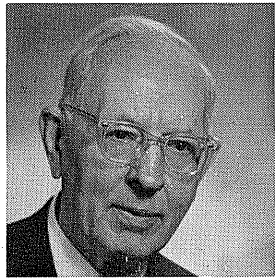
스웨덴어



타이티어



통가어



영감의 멧세지

요셉 필딩 스미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사함을 위해서 특별한 율법의 정한 바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 유혹에 떨어졌다는 기록을 읽습니다. 결국 아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망을 겪게 되었으니 영적인 사망이란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리되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였으며 이 길을 통해서만 인간은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삶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는 아담에게 천사를 보내사 아담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셨으며 아울러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는 신앙과 회개와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와 성신의 안수를 통한 영적인 삶을 준비해 주셨으며 이로써 인간은 원하느대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유산은 모든 인간의 자녀가 물려받게 되며 주의 면전에서 쫓겨나 영적인 사망을 겪어야 하는 인간은 복음의 원리에 의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사망으로 구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0년 1월 1일
(통권 제54호)

발행인: 서 현 보

편집인: 홍 무 광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50원

1년 구독료 (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제 6 권 제 1 호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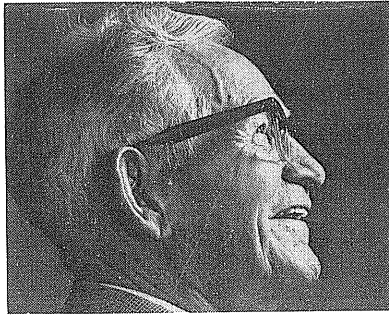
1970년 1월호

□ 권두언 □ : 범세계적인 우리 교회 데이비드 오. 맥케이	1
□ 특 집 □	
성도의 벋을 통하여 교회는 전세계에 멧세지를 전한다 도일 엘. 그린...	3
목표는 어떻게 세우며 또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마크 이. 피터슨...	7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졌노라 에이치. 돈 피터슨	10
건전한 사고, 건전한 행동 엘돈 에이치. 퓨케트.....	13
금 종	16
십일조의 법 리그랜드 리차즈	18
관리 감독단 말씀 : 금식	21
병든 양심의 치료 리차드 엘. 이반스	22
그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케네드 더블유. 고드프레이...	23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리드 에이치. 브렛포드...	26
선교부장 멧세지 : 새로운 해-또 새로운 십년 서 현보	29
지방부장 멧세지	30
선교부, 지방부, 지부역원 소개	31
새회원 소개	32
교회서적 안내, 지부소식	표 3
진리의 말씀 :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모 리차드 엘. 이반스	표 4

표지 설명 :

이달 성도의 벋 표지로는 영어 외에 17개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종합 잡지(성도의 벋) 1969년 3월호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성도의 벋은 내용, 컷, 사진 등이 모두 교회 본부에서 마련되므로 형태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17개국으로 보내는 잡지의 내용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완성의 단계까지는 약 4개월이 필요하며 수많은 난관을 타개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떤 지역에서 번역문이 영어보다 2월이나 길어져서 애를 먹게 되며 이로써 편집과 컷에 더욱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됩니다. 내용 선택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신전이나 세미나리 프로그램, 기타 교회 보조 활동 조직이 세계 전역에 다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이고도 각 지역 문화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일은 이만 저만한 큰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 권두언 ■

범 세계적인 우리 교회

7나라의 멧세지

늘웨이어

Vår Verdensomspennende Kirke

Av president David O. McKay

Gud velsigne Kirken. Den er verdensomspennende og dens innflydelse skulle bli følt av alle nasjoner. Måtte hans ånd influere menneskene overalt og vende deres hjerter mot forståelse og fred.

스웨덴어

Vår Världsomfattande Kyrka

Av president David O. McKay

Må Gud välsigna kyrkan. Den sträcker sig över hela jorden och dess inflytande borde kännas av alla länder. Må hans ande utgjutas över människor överallt och vända deras hjärtan mot fred och god vilja.

폴투갈어

Nossa Igreja Mundial

Pelo Presidente David O. McKay

Que Deus abençoe a Igreja. E mundial. e sua influência deve tocar tôdas as nações. Que Seu espírito possa influenciar a humanidade e inclinar seus corações à paz e boa vontade.

네델란드어

Onze Wereldomvattende Kerk

Door president David O. McKay

God zegene de Kerk. Zij is wereldomspannend en haar invloed moet wel door alle naties gevoeld worden. Moge Gods Geest het ganse mensdom beïnvloeden en hun hart richten tot vrede en in de mensen een welbehagen.

중국어

我們普世的教會

由麥基奧大衛會長

神祝福我們的教會。之是普遍全世界。各民族應感受其影响。願祂的靈影响各地人民。使他們的心傾向友善及平安

이태리어

La Nostra Chiesa Mondiale

di Presidente David O. McKay

Dio benedica la Chiesa. E'una Chiesa conosciuta in tutto il mondo e la sua influenza dovrà essere sentita in tutte le nazioni. Che il suo spirito abbia influenza negli uomini ovunque e incline i loro cuori verso la buona volontà e la pace.

영어

Our Worldwide Church

By President David O. McKay

God bless the Church. It is worldwide, and its influence should be felt by all nations. May his spirit influence men everywhere and incline their hearts toward goodwill and peace.

독일어

Unsere Weltumspannende Kirche

von Präsident David O. McKay

Gott segne die Kirche. Sie umspannt die ganze Welt und alle Länder sollen ihren Einfluß spüren. Möge Sein Geist alle Menschen beeinflussen, damit sie guten Willens und friedlich gesinnt sind.

불란서어

Notre Eglise Universelle

par le président David O. McKay

Dieu bénisse l'Eglise! Elle est universelle et toutes les nations devraient subir son influence. Puisse Son esprit influencer sur tous les hommes et incliner leur coeur vers la bonne volonté et la paix!

일본어

汎世界的の我が教會

デビッド O・マッケイ 大管長

教会に祝福あれ。主の祝福が世界の隅々まで及びますように。主の御霊の力によって、人々の心が善意と平和で満たされますように

핀란드어

Maailmanlaajuinen kirkkomme

Presidentti David O. McKay

Jumala siunatkoon kirkkoa. Se on maailmanlaajuinen ja kaikkien kansakuntien tulisi tuntea sen vaikutus. Koskettakoon Hänen Henkensä ihmisiä kaikkialla ja vaikuttakoon heidän sydämiinsä niin, että vallitsisi rauha ja hyvä tahto.

미국인디언

Our Worldwide Church

By President David O. McKay

God bless the Church. It is worldwide, and its influence should be felt by all nations. May his spirit influence men everywhere and incline their hearts toward goodwill and peace.

사모아어

O Lā Tatou Ekalesia I Lé Lalolagi Atoa

Tautalagia e Peresitene David O. McKay

Ia fa'amanuia e le Atua le Ekalesia. Ua i ai nei i le lalolagi atoa ma e tataua ai ona lagonaina e atunu'u uma lona aogā. Ia musuāia e Lona Agaga tagata uma i so'o se atunu'u ma fa'aūa'i atu ō latou loto i le alofa ma le filemū.

통가어

Hotau Siasi Faka'Univeesi

Fai 'e Palesiteni David O. McKay

'Ofa ke tāpuekina 'e he 'Otua 'a e Siasi. Kuo hoko ia ko ha siasi faka'univeesi, pea 'e onгона 'a hono ongo 'e he ngaahi pule'anga kotoa pe. 'Ofa ke fakaue'i 'e Hono laumalie 'a e kakai 'i he potu kotoa pe, pea ke takiekina honau loto ki he loto 'ofa mo e melino.

타이티어

Ta Tatou Ekalesia i Te Ao Taatoa Nei

Na te Peresideni David O. McKay

Ia haamaitahia te Ekalesia e te Atua. Tei roto te Ekalesia i te ao taatoa nei e to'na mana e mea tia ia i te faariihia e te mau nunaa atoa. Na te varua o te Atua e faauru i te mau taata i te mau vahi atoa e, e faafariu i to ratou mau aau i roto i te hinaaro maitai e te hau.

한국어

범 세계적인 우리 교회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은 범 세계적인 것이며 온 나라 사람들이 이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계 만방의 백성을 감화시키며 이로써 저들의 마음을 화평과 선함으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덴마크어

Vor Verdensomspændende Kirke

Af Præsident David O. McKay

Gud velsigne Kirken. Den er verdensomspændende, og dens indflydelse burde føles af alle nationer. Må Hans ånd øve indflydelse på mennesker overalt i verden og forlene deres hjerter med trangen til at vise god vilje og skabe fred.

스페인어

Nuestra Iglesia Es Mundial

Por el Presidente David O. McKay

Dios bendiga la Iglesia. Está en todo el mundo y su influencia se debe sentir en todas las naciones. Que su Espíritu ilumine a los hombres en todas partes y conduzca sus corazones hacia la paz y buena voluntad.

성도의 빛을 통하여 교회는 전세계에 멧세지를 전한다

도일 엘. 그린

● 8월 초순에 중국 성도들은 노아가 그 백성들을 경고하는 천연색 사진이 곁에 그려진 21×28센티 규격의 얇은 8월호 월간 잡지를 받았다. 이 잡지의 이름은 “聖徒之聲”이며 번역하면 성도의 소리란 뜻이다.

잡지가 발행되어 각 가정에 도착하면 아버지들은 온 가족을 불러 모아 표지에 그려진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첫 페이지를 열어 선지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멧이세지를 읽어 전한다. 8월호에 실린 대관장님의 멧세지는 “침례의 문”이라는 것이었다.

중국의 고대 한자로 기록된 아래와 같은 기사를 읽을 것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침례를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하였습니다. 침례란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사람에게는 성신의 은사가 주어진다.

침례는 복음의 첫째가는 원리이며 의식입니다.”
(성도의 빛 8월호)

두 페이지에 걸친 대관장님의 기사를 읽은 다음 가족은 이 글에 담긴 중요한 멧세지의 내용을 토론한다. 잡지를 뒤져보면 가족 전원에게 모두 흥미꺼리가 되는 여러 가지 내용의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총판리 역원 세분이 쓰신 글, 테오도로 엠. 버튼 장로의 ‘영감의 멧세지’와 12사도이신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님의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교훈’, 판리 감독이신 존 에이치. 반덴버그 형제의 ‘무엇을 행해야 할 권능인가’ 등을 들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린이 성도의 빛을 즐기는가 하면, ‘개인의 평가’ ‘성인과 배움질’ ‘어머니의 타성’ ‘공과 계획’ ‘상을 얻게되는 건강의 규칙’ ‘인간의 악한



계약' 책 뒷 쪽에는 유익한 진리의 말씀이 실려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도의 소리'는 약 1,000권 정도가 배부되고 있다.

거의 같은 날에 세계 16개국에 같은 표지, 같은 내용, 같은 편집의 잡지를 받게 되는데 그 언어가 다를 뿐이며 내용에 있어서 각각 그 지방의 뉴스를 실는 지방 뉴스란이 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을 위한 종합 잡지는 현재 12사도이신 하워드 더블유 헌터 장로가 유럽의 선교부장으로 계시던 1966년에 출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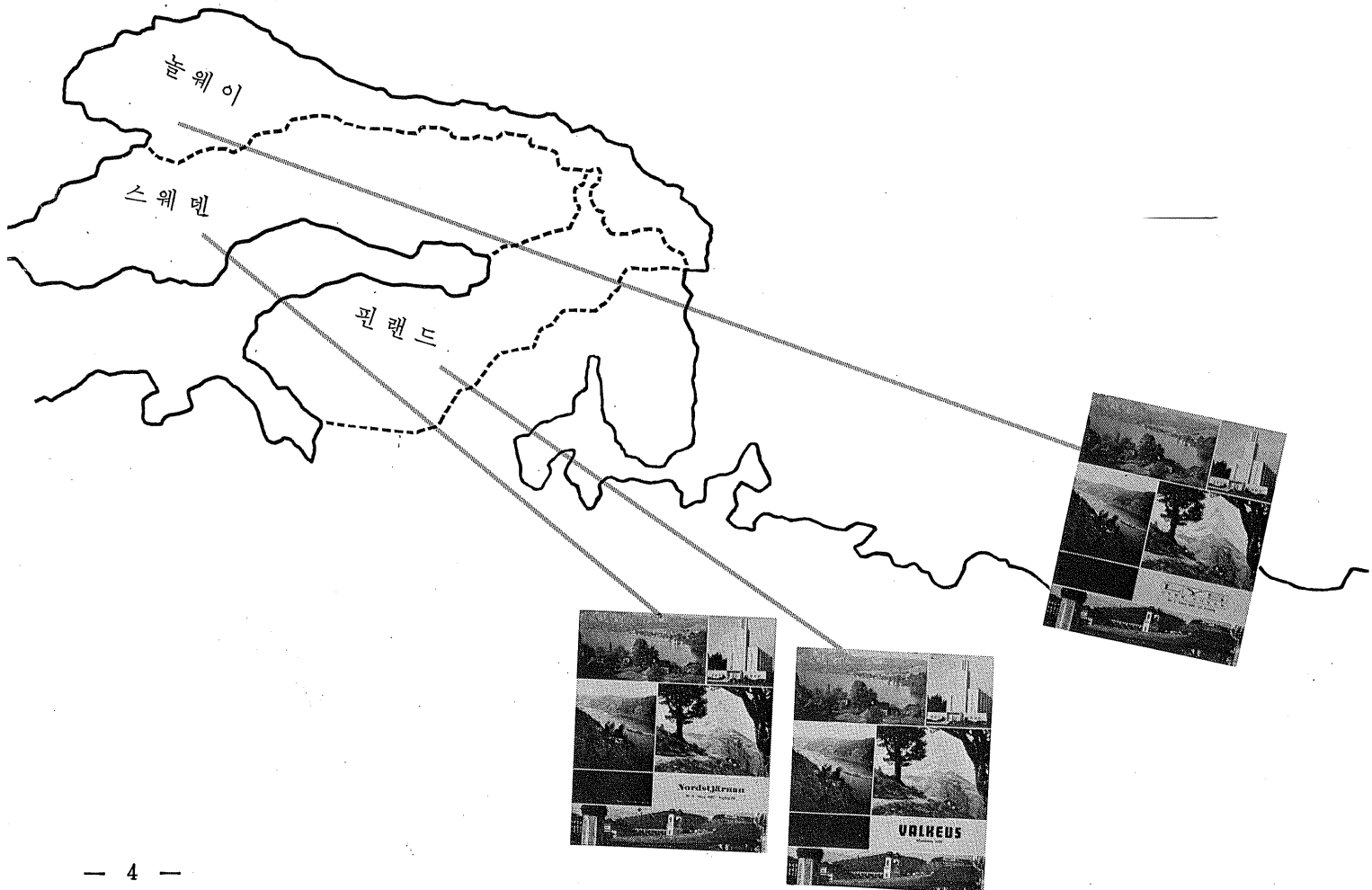
그가 여러 선교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각 선교부의 선교부장과 선교부 참모들이 대관장님의 메시지를 번역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리고 있음을 간파하였으며 잡지의 내용을 통일하여 체계를 세움으로써 일을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의도 하에 시간과 노력을 줄이며 동시에 잡지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잡지를 출판하기로 구상하셨던 것이다.

난관을 타개하고자 헌터 장로님은 교회에서 번역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 감독단의 반멘버그 형제님과 브라운 감독의 협조를 구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종합 잡지의 출판이 있기까지 당시는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형제가 책임을 맡고 있었으며 현재는 존 이. 카 형제의 책임하에 있는 번역 출판부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된 작업을 맡아 해주고 있다.

결국 오랜 연구와 숙의 끝에 종합 잡지의 기사는 이라지, 인스트락터, 킬드런스 후랜드, 상호부조회지 등에서 뽑고 여기에 몇몇 지도자의 특별 기사를 더한 다음 각 선교부장의 계획에 의거 각 지역의 뉴스를 넣어 완성시키자는 합의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각 지역의 언어로 번역되도록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이전에는 여러 지역에서 저마다 어렵게 준비하던 일을 총괄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첫번 종합지(한국의 경우는 성도의 빛)가 선을 보인 것은 1967년 3월이며 당시 구라파의 6개국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결국 다른 지역의 지도자들도 이 잡지의 내용과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북극동 아시아 및 폴리네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잡지의 발행을 원하게 되었다. 현재는 미국 인디안을 위한 영어판을 포함하여 17개국어로 이 잡지는 출판되고 있으며 발행 지역명과 잡지명은 다음과 같다.



나 라	책 이름	의 미
중 국 어	聖徒之聲	성도의 소리
덴 마 크 어	Den Danske Stjerne	덴마크의 별
네델란드어	De Ster	별
영 어	Liahona	방향구
핀란드어	Valkeus	빛
불란서어	L'Etoile	별
독 일 어	Der Stern	별
이태리어	La Stella	별
일 본 어	聖徒の道	성도의 길
한 국 어	성도의 벗	성도의 벗
놀웨이어	Lys over Norge	놀웨이의 빛
폴투갈어	A Liahona	방향구
사모아어	O Le Liahona	방향구
스페인어	Liahona	방향구
스웨덴어	Nordstjarnan	북극성
타이티어	Te Tiarama	빛
통가어	Ko E Tuhulu	햇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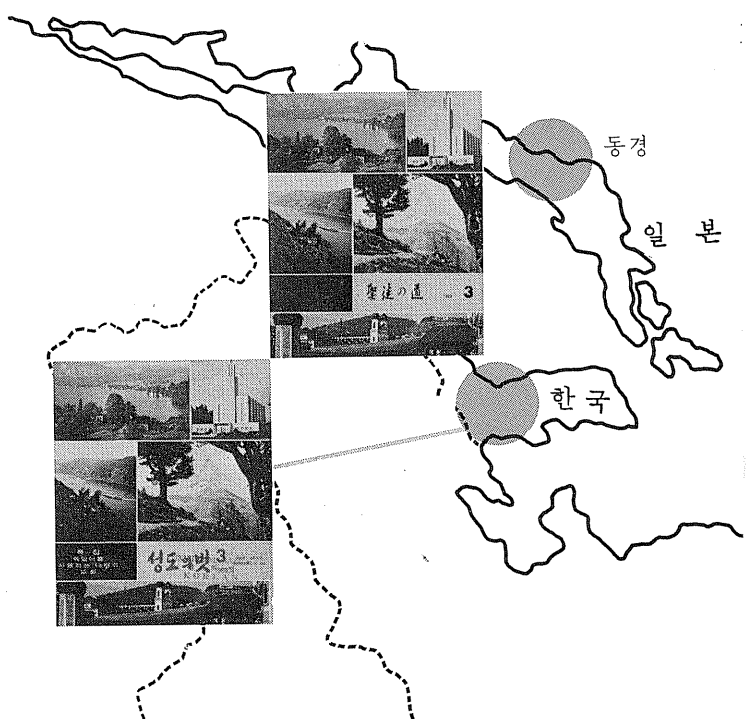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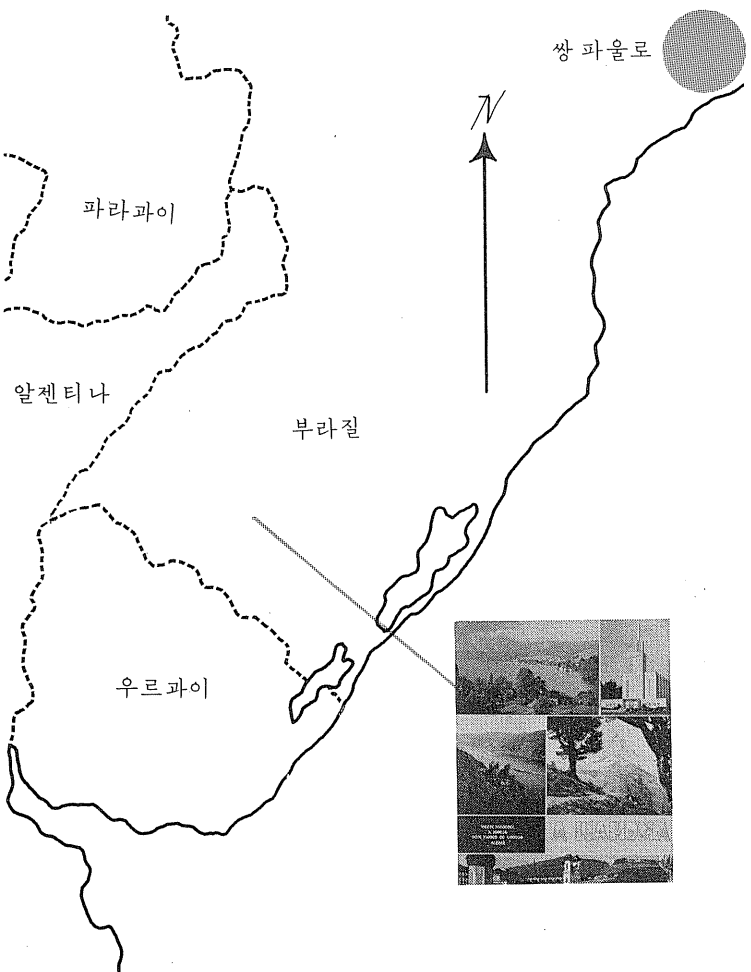
주님께서 리하이에게 그 가족을 인도할 때 사용하도록 마련해 주신 리아호나라는 이름을 4개 지역에서 잡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다.

이 종합 잡지의 발행 연수가 이제는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귀환 선교사에게는 낯설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Der Stern 의 예를 보면 금년에 발행 백주년을 맞아 특집을 냈다. 이 잡지는 1869년에 창간되어 오랜 세월을 두고 독일어를 사용하는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왔었다. 현재 이 잡지 발행부수는 6,000을 상회한다.

서반아의 Liahona 는 1945년에 창간되었으며 현재 7,700부를 인쇄하고 있다.

발행 부수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큰 것은 불란서의 L'Étoile로서 1928년에 창간되었으며 3,750부를 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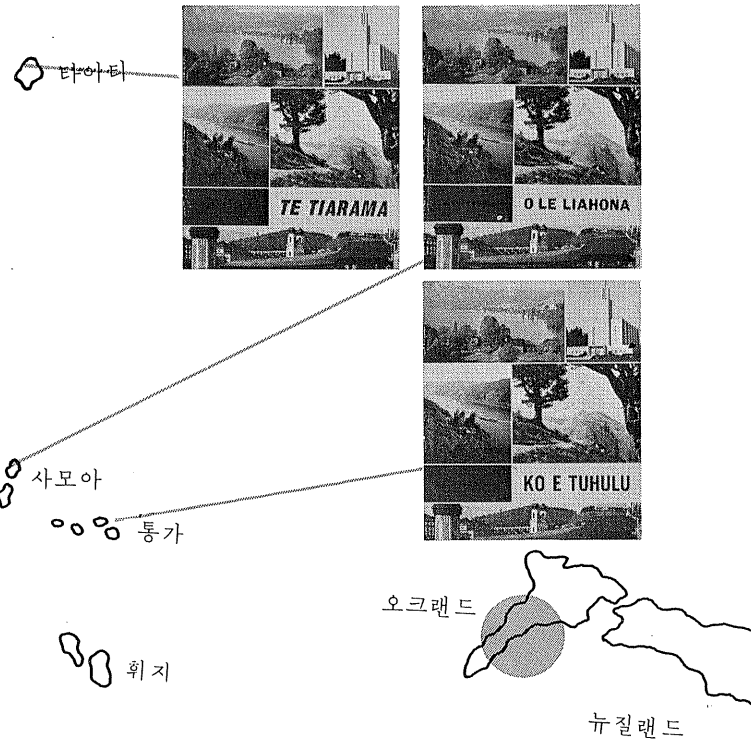
반대로 역사도 짧고 발행 부수도 아주 작은 잡지도 많다. 이태리의 La Stella 의 경우는 500부를 발행하며 가장 최근에 창간된 것은 타이티의 Te Tiarama로서 불령 폴리네시아 지역의 성도를 대상으로 하며 1968년 8월에 창간되었다. 불란서의 L'Étoile도 그 지역에 발행 배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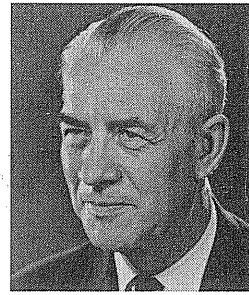
1968년 8월, 정리는 해롤드 비리 사도를 회장으로 하는 협의회의 감독하에 교회 권두언 정리계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매달 잡지의 내용은 영어 책자에서 엄선되어 권두언 정리계 등의 감수를 받게되며 여러 지역의 대표로 구성된 번역 출판과로 넘겨 다시 검토된다. 교회 협의 위원회에서는 이를 최종적으로 조사한다. 편집이 끝나고 기타 잡무가 끝나면 각 지역으로 보낼 번역 부분이 준비된다. 원문의 번역이 완료되면 각 선교부가 준비하는 지역 뉴스의 편집과 함께 인쇄소로 넘어간다.

현재는 솔트레이크의 편집 위원회에서 대개는 임푸르브먼트 이라지의 표지의 원색 원판을 만들어 각 지역으로 보내준다. 아울러 내면에 쓰이는 작은 컷도 역시 본부에서 원판을 만들어 보낸다. 이러한 보조 준비물과 편집 계획은 직접 인쇄부로 넘겨지며 여기서 모든 재료가 종합되어 잡지가 인쇄된다.

인쇄부 본부의 소재는 영어와 서반아어를 인쇄하는 솔트레이크, 폴투갈어를 인쇄하는 상파울로, 사모아어와 통간어와 타이티어를 인쇄하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독일어, 이탈리아어, 노웨이어, 스웨덴어, 핀란드어, 불어, 덴마크어, 네델란드어를 인쇄하는 독일의 후랭크휘트, 중국어를 인쇄하는 홍콩, 일어를 인쇄하는 동경, 한국어를 인쇄하는 서울등지에 있다. 종합 잡지 발행의 목적은 교회가 허가할 수 있는 최대 한의 혜택을 모든 성도에게 전하자는 것으로 특히 교회 총판리역원이 강조하고 있다. 이 잡지를 통하여 총판리역원의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며 교회 및 교회의 교리, 정책발전 사항등의 기사가 교회 전반에 걸쳐 거의 동시에 전달되는 것이다. ○



목표는 어떻게 세우며 또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마크 이. 피터슨
· 십이사도 정원회

● 목표를 세워 달성함에는 세 단계가 있다.

(1) 관찰, 진단 (2) 처리, 치료 (3) 복구, 회복
우리의 입장을 관찰하지 않고서는 목표를 세우지 못한다. 사전 조사가 없다는 것은 암흑 가운데서의 작업을 뜻한다.

테저렛 뉴스사에서 여러 해 동안 일하는 동안 나는 앨버트 이. 보우엔 장로의 조력을 받았다. 나는 참으로 그의 도움을 감사하게 되었으며 또 많은 훌륭한 것을 그에게서 배웠다. 언젠고 문제에 부딪치면 그는 “사실을 캐자. 사실을 대치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뇌까렸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조사하면서 있는 대로의 사실을 알아내야 한다.

조사 및 관찰의 방법은 세 단계의 기본 과정이 있다.

- (1) 보고서의 충분한 이용 (2) 관련자와의 접견
- (3) 방문을 통한 직접 조사

보고서의 검토 및 사용 : 보고서를 검토해야만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알게 된다. 다음에는 어떠한 개선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예를들면 비슷한 환경하의 다른 스테이크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살펴 여기서 얻는 지식으로 우리는 가능한 활동 범위를 알게되고 우리 스스로의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조사한 어떤 스테이크의 성찬식 참석율은 28% 였다. 그런데 비슷한 여건의 다른 스테이크의 성찬 참석율이 33%임을 알아냈고 최소한 참석율을 42%까지 끌어 올릴 수 있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주일학교의 경우는 우리의 조사에 참석율이 39%로 나타난 스테이크가 있었고 조건이 비슷한 다른 와드가 41%, 우리는 50%로 목표를 세웠다.

상호 향상회의 참석율은 여자가 41%, 남자가 35% 였다. 그런데 근처의 스테이크 보고를 조사해 보니 남자가 42%, 여자는 48%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 65%, 남자 55%로 목표를 세웠다. 가정 복

음 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스테이크가 교육 실시 23%로 나타났고 우리는 80%로 목표를 세웠다. 우리는 또 57 가족만이 가정의 밤을 갖고 있음을 알아냈는데 주위의 스테이크에서는 384 가정이 가정의 밤을 갖음이 밝혀져 우리는 700가정으로 목표를 세웠다.

이제 목표 설정의 방법을 연구해 보자. 미국 동부 지역의 A 스테이크의 성찬 참석율이 27%, B 스테이크의 것도 27%, C 스테이크의 것도 27%일때, A 스테이크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주변의 것과 같으니 그대로 둘 것인가? 자 그러면 A 스테이크의 목표를 세우기 전에 다른 대도시의 스테이크 참석율을 살펴 보기로 하자.

- D 스테이크.....30%
- E 스테이크.....34%
- F 스테이크.....34%

과연 A 스테이크의 여건이 27%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다음에 로스 엔젤스의 가장 낮은 출석 상황을 검토해 보자.

- G 스테이크.....30%
- H 스테이크.....31%
- I 스테이크.....33%

큰 도시라고 해서 사정이 다른 것은 아니다. 대도시의 최고 참석율은 43%를 상회하고 있었다. 대도시의 어느 스테이크의 참석율이 43%라면 G 스테이크나 H 스테이크나 I 스테이크는 참석율을 좀 더 끌어 올려야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될런지? 나아가서 대도시의 스테이크가 참석율 43%를 마크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A 스테이크의 목표에 대한 암시를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여기 와드나 기타 보조 조직의 발전을 약속하는 6 기본 과정의 산 증거가 있다.

가장 높은 스테이크의 참석율인 40%와 A 스테이크의 참석율 27%를 더하여 둘로 나눈 평균치를 목표로

여기 와드나 기타 보조조직의 발전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평균치는 33%일 텐데 아마도 이것이 첫 단계의 시도로서 온당할 것이다.

유타의 여러 스테이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이들의 평균 출석율은 46% 였다. 그렇다면 A 스테이크는 46.5%를 둘째번 달성 목표로 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계속하여 조사를 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A 스테이크의 주일학교 회원 출석율은 32%, B 스테이크는 31% C 스테이크는 34%, 그렇다면 A 스테이크의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는 우리 스테이크의 출석율 45%를 낮은 참석율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스테이크를 막론하고 주일학교에는 적어도 50%이상이 참석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A 스테이크의 이상적인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하겠는가?

적어도 50%선을 목표로 설정할 것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작업을 개시할 것이다. 다른 스테이크의 출석율이 저조하다고 하여 A 스테이크의 낮은 출석율이 합리화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논리적인 이론으로 표준을 세워야하며 평균치수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다.

유타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스테이크의 주일학교 평균 출석율은 34%에서 76%까지로 나타났다.

한 스테이크의 평균 출석율이 76%일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스테이크의 출석율도 그럴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가정 복음 교육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다음과 같다.

- A 스테이크.....43%
- B 스테이크.....35%
- C 스테이크.....38%

첫 단계 과정으로 A 스테이크의 달성 목표를 50%로 한다면 합리적일까?

보우엔 형제가 이야기 했듯이, “사실을 대치할 수 있는 것은 사실뿐이다”라고 한 논리는 스스로 그 의의가 정연하다. 보고서에 나타나는 것이 사실의 전부이기 어렵다. 통계 자료만 갖고서는 우리는 목표를

세우기 어렵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방문과 접견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

조치: 첫번 과업인 조사 및 관찰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개선 되어야 할 점을 발견하였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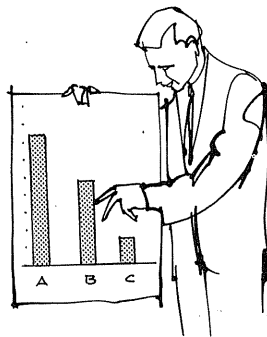


았다. 필요는 수단을 불러오며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즉 진찰에서 처방이 낮을 때 우리는 약을 결정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다.

어떤 스테이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스테이크 내의 한 와드의 성찬식 출석율이 아주 좋지 못했다. 그리고 방문과 접견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 냈다. 경건성의 결핍, 음악 준비 불충분, 성찬식 관리 불량, 영적인 말씀의 준비 부족: 결국 이런 것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잃게 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목표가 세워졌다.

1. 경건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함.
2.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하여 경건성을 가르치고 지도자들 스스로가 모임에서 모범을 보인다.
3. 와드 합창단과 와드 음악 위원회를 조직한다.
4. 성찬식 관리를 위하여 소신권 정원회를 합당하게 훈련시킨다.
5. 성찬식에서 말씀 할 연사를 사전에 충분히 계획



약속하는 6기본과정의 산 증거가 있다

검토하여 정한다.

6. 역원과 교사를 불러 출석율 향상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목표를 달성하자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지불해야 한다.

1. 가정 복음 교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경전을 가르친다. 감독은 성찬식 10분 전부터 전주 음악을 연주하도록 준비한 다음 회중들에게는 경전한 마음으로 앉아 있도록 하며 안내를 질서있게 보도록 한다.

회원들이 집회 장소에 들어오면 따뜻한 악수로 맞아 들이고 조용한 가운데 경전을 가르친다.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우선 문전에서 있는 감독단의 일원에게 소개한다. 다음에 안내원은 이러한 사람을 자리로 안내한다.

성찬식을 사회할 감독단의 일원은 일찍 단 위에 올라 자리를 잡고 앉아 다른 회원에게 모범을 보인다. 21세 이상의 아론신권 소유자가 안내를 맡고 21세 이하의 아론 신권 소유자가 조력한다. 이러한 봉사 활동은 아론 신권 달성상 획득의 필요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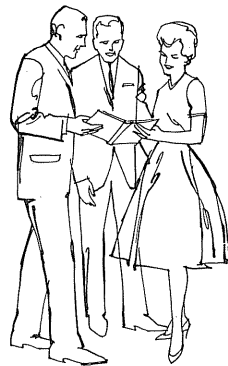
모임이 시작되기 10분전부터 반주자는 전주 음악을 연주한다. 교회 집회의 경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는 반주를 맡은 자매가 종종 10분도 늦고 5분도 늦어 모임이 그만큼 지연되었지만 이제는 감독이 정시 개회를 강조하며 감독단의 일원이 전주 음악 연주 전에 회중의 자리를 정돈하도록 한다. 모임이 끝날 때도 역시 감독단의 일원이 폐회를 알리며 때를 같이 하여 후주 음악을 연주하고 이 사이에 회중은 조용히 예배당을 나와 복도에서 서로 인사를 나눈다.

2. 감독이 각 가정 복음 교육 교사에게 경전 프로그램을 와드의 회원에게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회원들에게는 각각 자기들의 자녀에게 경전을 가르치며 교회는 주의 전당이며 참석하여서는 조용하고 경건하게

하도록 가르치게 한다.

3. 다음 계획은 음악의 향상이었다. 감독단은 음악 위원회를 조직하고 회원들을 모아 합창을 돕게 했으며 음악 위원회와 더불어 성찬식에서의 음악을 준비하고 계획하였다. 간혹 스테이크 대회에서 훌륭한 노래

숨씨를 들려준 초등 협회 어린이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초청하여 성찬 음악을 맡게 하였다. 상향회 합창단도 특별히 초청하여 교회의 젊은이를 성찬식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 더구나 합창단의 음악은 반드시 말일 성도 합창곡에서 정하도록 강조하였다.



4. 성찬식을 보다 훌륭하게 관리하자는 계획을 다음에 수립하였다. 제사와 집사에게는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감독은 교회의 집사들이 성찬 전달 지명을 받은 때에만 교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하여 와드 예산으로 성찬 전달용 접시를 더 장만한 다음 모든 집사를 매주 불러 성찬 전달을 맡기도록 했다. 집사를 모두 지명하니까 성찬 전달 시간이 짧아 졌다.

5. 그 다음 감독은 매주 성찬식에 주제를 정한 다음 연사를 사전에 정하여 주제에 부합되는 이야기를 준비하도록 조치했다. 매주 성찬식에는 연사를 다섯명 정하였고 그중 십대 소년 3명에게는 3분간씩의 시간을 주고 성인 2명에게는 15분에서 20분의 시간을 배정하였다. 그렇더라도 이야기에 사용되는 시간은 언제나 50분을 넘지 않았다. 연사 개개인에게는 2주 전에 주제를 주고 맡은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주제를 주어 이야기를 하게했던 어떤 날 마침 침례가 주제였다. 십대의 소년이 침례 요한의 사명과 그

리스도의 침례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 다음 소년은 침수로서의 침례의 의의를 이야기 하였다. 세번째 소년은 영의 거듭남으로의 침례와 안수로서 주어지는 성신의 은사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 다음 성인은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거룩한 권능과 그 권능의 입수 과정을 이야기 하였고 마지막 성인 회원의 말씀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죽은 자에게 전하는 복음에 관한 것이었다.

6. 그 다음 감독은 각 역원과 교사에게 성찬식 출석율을 올리도록 하자고 하였다. “우리 감독단 전원은 늘 성찬식에 참석하여 교회의 모든 회원과 회원의 가족이 집회에 참석하나를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 역원과 교사에게 여러분도 빠짐 없이 모든 집회에 나오도록 권고하며 여러분이 회원들에게도 집회 출석을 권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감독은 아론신권 정원회를 방문하여 같은 부탁을 했다.

감독은 준비한 계획안을 스테이크 부단장에 제출하

여 승인을 요청하였다. 6개월이 지나자 성찬식 참석율은 29%에서 51%로 상승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감독은 통계와 개인 면담을 다 재료로 하여 일하였다. 결과적으로 와드는 성찬 출석 51%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고 회원은 서로 서로 더욱 의욕적인 활동으로 봉사하였으며 각 보조 조직의 활동은 강화되었고 정신적인 자세도 훨씬 좋아졌다.

성찬식을 통하여 구도자에게 교회 의식을 가르치므로써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도 크게 활발해졌다.

나는 보고서의 통계표만으로는 합당한 재료를 얻지 못함을 거듭 역설한다. 이 표에는 경건의 결핍, 연사의 준비 부족 등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군중 속으로 헤치고 들어가 문제의 핵심을 찾고자 했을 때 통계표에 나타나는 수치는 비로서 큰 도움이 되며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도 크게 이바지 하게 되는 것이다. ○

신대륙에 살았거나 구대륙에 살았거나 옛 선지자는 한결 같이 예수를 증거하였다. 예수의 행적을 증거하는 두 책 중 물문경에 소개되는 예언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졌노라

에이치. 돈 피터슨

● 인간이 이제까지 가졌던 가장 큰 소망의 멧세이지 중의 하나는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며 세상의 구속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도록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상과 같은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여 부활을 가능케하시고 완전하고도 부활된 몸을 가지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해 주는 계획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셨으며 이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토록 훌륭한 복음은 우리의 다음 단계에 있어서

의 삶에 대한 예비의 척도는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기만 하면 인간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오늘을 살면서 기쁨을 얻고 가장 전전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인류의 최초의 아비였던 아담에게 가르쳐진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기쁨을 갖게 되었으며 또 다시 육체로서 하나님을 보리라.”(모세서 5:10)

물문경이 증거하다

중동에 살았던 선지자요 구약에 소개되는 한 선지자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가르침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물론경에 소개되는 선지자들 역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영감을 받았으며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예언을 자주 전하였습니다. 주전 약 6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야콥은 장차 올 백성들에게 그와 그밖의 다른 옛 선지자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주기 위하여 그의 기록을 보존시켰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기록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대로 저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요, 그리스도의 강림 수 백년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 기다렸으며 우리 이전에 살았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 역시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 기다렸음을 저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었느니라.”(야콥서 4:4)

이밖에도 물론경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옛 백성들의 거룩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렛인들이 증거하다

이더서에는 물론경에 소개되는 가장 오랜 백성 즉 바벨탑이 무너졌을 때 서반구로 이사해온 야렛인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야렛 백성의 지도자요 선지자였던 야렛 형제는 영체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지상의 과업과 백성들을 위한 구속 사업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더서 3, 4장을 참조하라) 야렛 형제 뒤로도 위대한 선지자가 나의 뒤를 이었으며 이들 역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르치며 주님의 복음의 계획에 위배되는 백성들의 행위를 경고했습니다.

눅쇠판에 나오는 선지자

니파이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떠나(주전 600년경)서 반구로 왔을 때 이들은 조상의 거룩한 기록이 담긴 눅쇠판을 함께 가져 왔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거룩한 기록은 니파이인들에 눅쇠판의 기록으로 전하여졌습니다. 이 판에는 전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지노스 지노크 베움 등의 선지자에 관한 거룩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언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예언은 아주 분명합니다. 지노크는 그리

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베풀어 주실 자비에 관하여 외쳤으나 그 때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었으므로 지노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니일 19, 앨 33:15-17을 보라)

지노스는 모든 바다의 섬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할 때 임할 삼일간의 암흑에 관하여 예언했습니다. 지노스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못박고 마음을 딴 곳으로 돌리며 기적과 표적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닥칠 불행에 관하여도 예언했습니다. 물론경 중에 가장 긴 장은 야콥서 5장이며 여기에는 지노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올 일에 관하여 기술하여 놓았다. 선지자 야콥은 지노스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종합 정리하였다.

“보라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하겠느냐?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거절하며 그리스도의 선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고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며 성신을 비웃으며, 너희들 앞에 마련된 구속의 계획을 조롱하겠느냐”(야콥서 6:8)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는 이미 전에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한 여러 선지자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지노스의 운명에 관하여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브라함 이후로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 일을 증거하여 왔음을 너희가 알기 바라노니 보라 선지자 지노스도 이를 담대히 증거하여 이로써 죽음을 당하였고”(힐라맨 8:19)

셋째번 선지자 베움은 눅쇠판에서 인용하여 그리스도가 무덤에 묻히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니일 19:10)

니파이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았음

베냐민 왕의 기록 가운데 특별히 강조된 구절이 발견됩니다. 모사이야서 3장의 대부분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는 천사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외치기를 “보라 나는 그대에게 그대가 크게 기꺼워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고 하였고 이어서 베냐민 왕에게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일을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에 소개되는 구절은 아주 분명하며 또 의미 심장합니다. 일렸으며 “전능하신 주가 하늘로부터 오사 흠으로 지어진 장막에 거하시며, 인간들에게 나아가시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로 빛을 보게 하시며…… 육신의 고통과 주림과 갈증을 겪으며……죽음은 아녜 망정 인간이 감당치 못할 온갖 고난을 겪으시어 보라 주의 백성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큰 고뇌로 하여 온 몸의 땀구멍에서 피가 흘러 나오리라.……저는 하나님의 아들, 태초로부터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늘과 땅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이르리니.” (모사이야 3:5-8을 참조하라)

천사는 계속하여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 십자가에 달리실 일, 그의 부활과 심판 등에 관하여도 설명했습니다. (모사이야 3:9-10을 참조하라)

이곳에 나타난 압축된 기사의 내용은 니파이인들이 얼마나 분명하고도 바르게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목적을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여실히 증거합니다. 니파이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간증의 기사를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리하이 :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난 600년 후에 주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 메시아 곧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언자를 세우시리라 하시었으며…… (니일 10:4-17을 참조하라)

니파이 : 그러므로 주 너희 구속주께서 행할 것을 내게 보이시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내가 이른 대로 행하라. 너희에게 이 일을 행하게 하시며,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을 알게 하시려고 이를 내게 보이셨으니,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은 회개와 물의 침례라. 그후에 불과 성신으로 죄사함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하여 너희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곧고 좁은 길에 임하니, 너희는 이제 그 문에 들어 섰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계명대로 행하였고, 성신을 받았으니 성신은 너희가 영생의 길로 들어서면 받으리라고 하신 주의 언약을 이룬에 있어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분이라. (니이 31:17-21을 참조 하라)

야곱 : 보라 그리스도의 강림을 나의 백성들에게 증

거함에 나의 영육이 기뻐하노니 이를 위하여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으며,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니라. (니이 11:4, 9을 참조하라)

예이름 : 선지자와 제사와 교사가 부지런히 백성들을 가르쳐 부지런하게 하며, 모세의 율법을 그 주어진 뜻대로 가르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의 강림을 믿도록 이미 그가 오신듯이 권고하여 가르치는 등, 이들은 모두 이같이 백성들을 가르쳤느니라. (예이름 11을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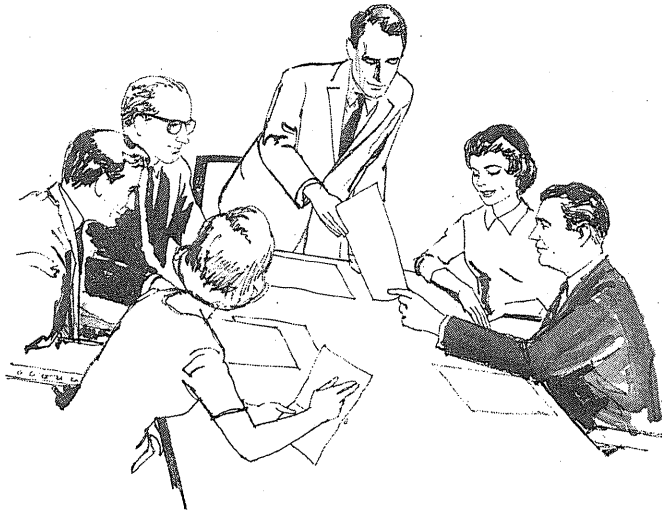
아빈아다이 : 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시며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전능하신 권세로 땅위를 왕래하시리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 오시며, 친히 학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리라고 저들이 이야기하지 아니하더냐? (모사이야 13:34-35를 참조하라)

엘마 1세 : 그러나 보라 영이 내게 이렇게 이르셨으니, 이 백성에게 부르짖어 회개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곧은 길을 따르라 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왔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땅 위에 오심이라고 하셨느니라. 보라 그는 우리 선조의 땅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뿔힌 그릇이요 청결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라. (엘 7:9-13을 참조하라)

엘물레크 : 보라 이제 이러한 일들이 사실임을 내가 너희에게 간증하려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 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범법을 대신하시며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에게 강림하실 것을 아노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라. (엘 34:8-16을 참조하라)

레이맨인 사무엘 : 보라 구원이 이르게 하시려 저가 분명히 죽으셔야 하며,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게 하시어 인간을 주의 면전에 이끌어 가려 하심에, 의당 저가 죽으셔야 하고 또한 죽으심이 마땅하니 (힐 14:15-18을 참조하라)

이와같이 물몬경의 여러 선지자는 성경의 기사를 뒷받침하여 예수는 참된 구세주요 모든 인류의 구속주라는 소망의 간증을 한 소리로 합창하고 있습니다. ○



진전한 사고 진전한 행동

엘든 에이치. 퓨케트

● 교회 주일학교 총본부의 교사 훈련 위원회에서는 이미 교회의 다른 부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문제점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즉 공과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몸가짐에만 중점을 두고 공과 목표를 세우다 보면 학생들의 느낌이나 감정은 등한시하는 위험이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다.

계속적인 향상을

위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복음 안내를 위한 행동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 왜 우리는 교사 훈련반에서 공과 준비를 그토록 강조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성인들이 아껴 부르는 유년 찬송가 “나는 하나님의 아이예요”라는 노래 속에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그려져 있다. 더우기 합창단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그 의미가 애처롭기까지 하다.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며 내 곁에 계셔서 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삶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해야하는’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

달함에 있어서 목표를 행동에 두도록 하고 바른 행동으로서 승영으로 전진하도록 함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감정이나 이성을 미쳐 발전시키기도 전에 선한 일만 행할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옛 속담을 되풀이 하는 것과 흡사할 것이다. 누가 과연 어느 것이 먼저라고 절대적인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조그만 아이를 예로 들어 보자. 이 아이가 예의 바른 행동을 할 때 과연 이 아이는 합당한 행동 규범을 강제 당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정도면 남이나 스스로가 탓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행하는 것일까? 생각컨대 위에 든 이유가 조금씩은 다 관련이 될 것이다.

사실 행동과 자세는 승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간과할 수 있게 해준다. 행위자의 자세가 바르지 않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행위가 다 승영을 약속한다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칩례의 경우 당사자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그 칩례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자세만으로 승영이 오는 것도 결코 아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말할 수 없을만큼 동정심을 품는 사람이 있어도 만일 실제로 아무 것도 행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승영에는 바른 사고와 바른 행동이 다 필요한 것이다.

옥수수 떡과 당밀

주일학교의 가르침에 대한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합당한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하겠고 늘 민감하게 사태를 파악해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솔선해서 움직이도록 해주지 않고 방관하고만 있다면 사람들의 생활을 활기있게 해 줄 수도 있는 모든 가르침의 가능한 씨앗은 사장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실예를 내 개인의 생활에서 체험한 대로 소개해 볼까 한다. 열살 먹은 딸 마티가 몇주전 회색이 만면해서 주일학교를 끝내고 집으로 왔다. 그는 넘치는 기쁨을 마음속 깊이 감춘채 식구들에게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었다. 마침내 저녁상을 받고 나서 마티는 입을 열었다.

“아빠! 오늘 주일학교에서 참 훌륭한 공과를 했어요!”

“그래?”

“네! 우린 옥수수 떡과 당밀을 먹었어요!”

“정말이니?”

“그럼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옛날 개척자들은 몇주씩 계속해서 옥수수 떡과 당밀만 먹었다고 하시던데요.”

“그건 그랬지.”

“그래요 아빠, 우리가 옥수수 떡과 당밀을 먹으면서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하니 꼭 우리가 개척자가 된 것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는 그의 알뜰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불러 넣어 준 벅찬 감동에 휘말렸던 주일학교 공과 시간을 돌이켜 생각하는 눈치였다.



“아빠 오늘 주일학교에서 참 훌륭한 공과를 했어요!”

말을 끝내고 나서도 마티는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 그는 그런 음식은 싫다고 했다.

“너 아직도 개척자 소녀가 된 기분이나?” 나는 물었다.

“네——”

“너 말이다. 네 나이 또래의 개척자 소녀가 음식의 좋고 나쁜 걸 가렸겠니, 어때?”

마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 대신 조용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마티의 주일학교 공과가 그로 하여금 개척자가 겪은 고난을 실제로 느끼게 해 주었으며 개척자를 동경하는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것도 가르쳤으며 이 모든 것은 결국 지혜로운 선생님의 사려깊은 준비가 없었던들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을 것이다.

간 증

다른 예 : 지난 여름 나는 주일학교에서 18세 연령만을 맡아 가르친 일이 있다. 그때 나는 금식주일공과 계획을

하면서 금식주일에는 꼭 학생을 하나 지명해서 그날 배운 것에 대한 간증을 하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준비 모임 시간에 나는 이러한 나의 계획을 반 학생들에게 알렸다. 그 후 나는 적어도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기 원치 않는다는 태도로 일어나 간증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간증을 한 학생이 바른 동기에서 간증을 한 것이냐?”고 누가 이러한 질문에 감히 답할 것인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학생이 간증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행동을 스스로 해 보인 것이다. 나는 속으로 분명 다른 사람들도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겠다는 의욕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일단 이루어진 행위가 온전히 바른 동기에 근거를 두었거나 두지 않았거나간에 충분히 반복시키고 훈련시킨다면 종내는 자의적인 것으로 분명한 동기에서 시작될 것이다. 참된 간증은 서로 나누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영원한 변화

가르침이란 마치 돌을 다듬는 석공의 작업과 흡사한 것이다. 석공은 처음에 전혀 모양을 다듬는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큰 망치로 일을 시작한다. 한번이나 두번쯤 같은 자리를 때려 보았자 그 자리에서 작품이 창조되는 것은 아니다. 망치질을 거듭하지만 금이 생기지도 않고 전혀 변화가 올 것같은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그러다가 되풀이되는 한번의 망치질, 그것 하나로 돌에는 금이 가고 영원한 변화가 오는 것이다.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올바른 행동을 계속해서 되풀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언젠가는 영원한 변화를 결정하는 그런 행동이 발현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복음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하며 마침내는 행위자 스스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바른 동기에서 자의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모두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간직한다면 행동의 목표를 세우는 일이라던가 행위의 의미 및 자세를 갖추게 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1월 주일학교 성찬식 전주곡



1월 주일학교 성찬식 성문 봉독

장년 주일학교

모세서 1장 39절

유년 주일학교

마태복음 22장 39절

2월 주일학교 연습찬송

장년 주일학교

38장 날이 밝아 오니

유년 주일학교

26장 사랑하는 자녀들아

2월 주일학교 성구암송

요한반 혹은 기초 교리반

마태복음 5장 48절

복음의 세뭇지반

에스겔 37장 15절—17절

금종

● 옛날옛날 깊은 산 속에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일에 성공한 광산 주인이었으므로 그 동네는 부자 마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면 제각기 자기의 광산으로 가서 금 덩어리를 한 자루씩 담아 오곤 했습니다. 광산을 갖기에 싫증이 난 사람들은 상점을 경영하던지 학교에서 선생님 노릇을 했습니다. 또 더러는 구두방을 내고 구두를 짓기도 하고 채소를 기르기도 했으며 금광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돈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 동네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특히 공회당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동네의 아버지들이 대장간에 와서 “우리 공회당 탑 위에 달 종이 필요한데 저 금으로 멋진 종을 만들지 않겠어요?”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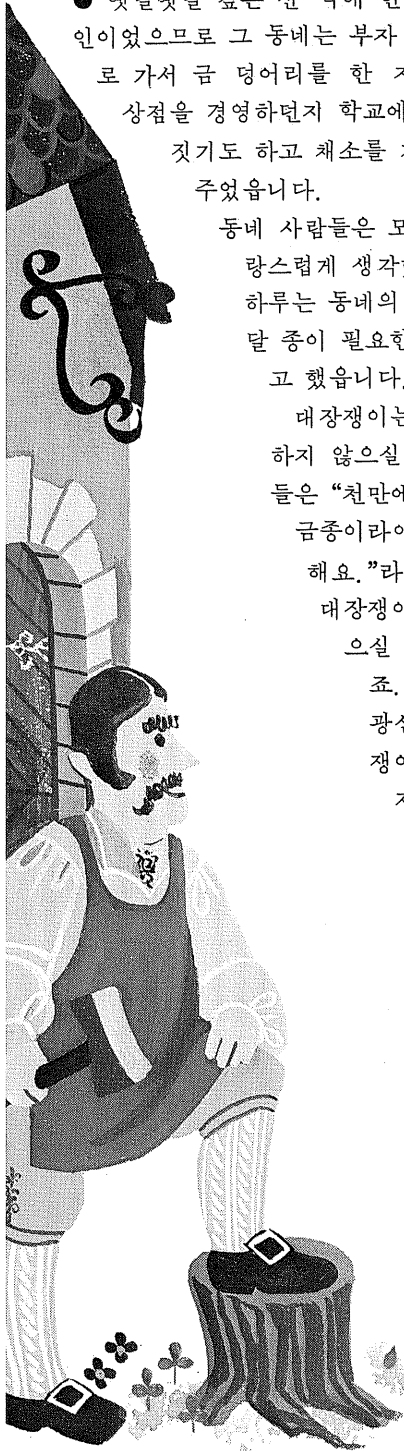
대장쟁이는 머리를 긁으면서, “뭐 별로 신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아버지들은 “천만에, 좋아하고 말고 꼭 금종을 달아야 겠어요. 금종이라야 하구 말구요. 우리 공회당엔 금종을 달아야 해요.”라고 소리쳤습니다.

대장쟁이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정 원하신다면 만들어 드리죠. 금이나 가져 오시지요.”

광산주들은 여러 차례 금광을 왕복하여 대장쟁이가 종을 만드는데 필요한 만큼의 금을 가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둘러서서 종을 어떻게 만드나 보고 싶어 했지만 대장쟁이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그 집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거진 다 만들었나요?” 그러나 대장쟁이는 늘 사람들을 돌려 보냈습니다. “다 되면 부르겠어요.”

여러 주가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조바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떤날 마침내 대장쟁이는



종이 토요일에는 완성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요일 새벽은 밝아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부자런히 일을 거들었습니다. 남자들은 푸른 잔디 위에 상을 펴고 여자는 음식을 풍성하게 장만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꽃밭에 들어가 꽃을 예쁘게 손질했습니다.

대장쟁이는 그의 집 문을 열고 종을 내다가 달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아름답게 만들어진 종을 보고는 기뻐서 어쩔줄을 모르며 마을을 지나 공회당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종을 밧줄에 묶어 탐으로 끌어 올린 다음 탐 꼭대기에 달았습니다. 금종을 처음 울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영광스럽게도 종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잔디밭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금종의 소리가 울려나올 시간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발을 힘있게 딛고 서서 줄을 잡고 힘차게 당겼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귀에는 둔탁한 질그릇 소리가 탁! 탁! 들려 왔습니다.

선생님은 아마 줄을 너무 약하게 당겼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차게 줄을 다시 당겼습니다.

그러나 금종에서는 여전히 둔탁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대장쟁이에게로 달려 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일이지요? 우리 금종이 울리지 않으니 말이지요?” 대장쟁이는 머리를 긁으며, “미리 말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요!”
“종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금으로 된 종은 울리지 않을 뿐입니다. 종이 울리려면 쇠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을 아버지들은 입맛을 다시면서 서로 쳐다보며 “다른 종을 만들려면 또 여러 주일이 걸릴텐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대장쟁이는 눈을 번쩍이며,
“여러분이 금종을 좋아하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금방 울릴 종이 필요하거든 내집 뒤뜰에 있는보기 흉한 쇠종을 가져 가시오.”

그래서 곧 금종은 내리고 쇠종을 대신 탐에 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네 아버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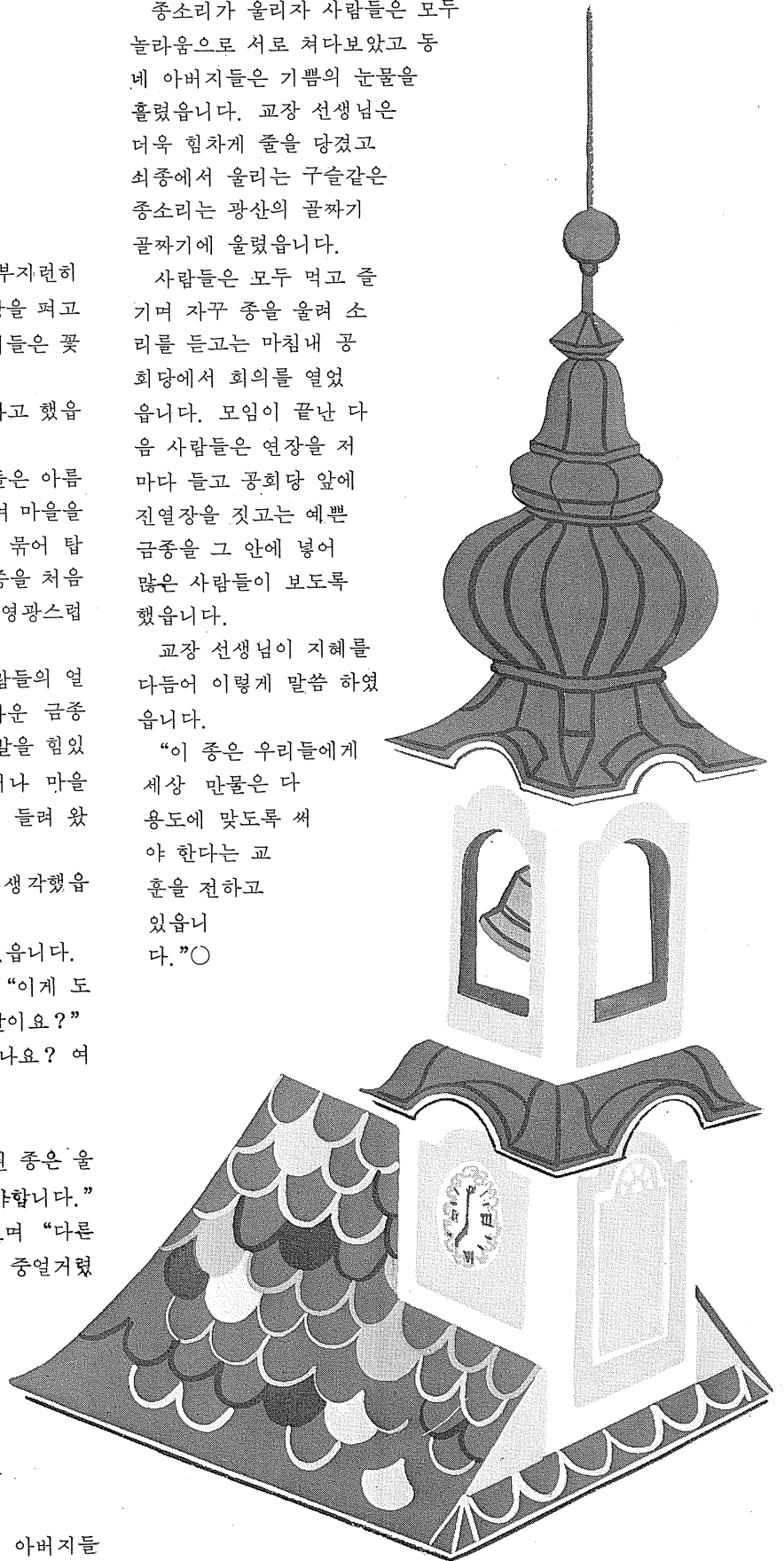
은 몸을 움츠렸고 교장 선생님은 발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줄을 당겼습니다.

종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으로 서로 쳐다보았고 동네 아버지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더욱 힘차게 줄을 당겼고 쇠종에서 울리는 구슬같은 종소리는 광산의 골짜기 골짜기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먹고 즐기며 자꾸 종을 울려 소리를 듣고는 마침내 공회당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사람들은 연장을 저마다 들고 공회당 앞에 진열장을 짓고는 예쁜 금종을 그 안에 넣어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지혜를 다듬어 이렇게 말씀 하였습니다.

“이 종은 우리들에게 세상 만물은 다 용도에 맞도록 쓰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일조의 법

리그랜드 리차드

12사도

친애하는 상호부조회 자매 제위;

● 여러분과 함께 십일조에 관하여 토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나는 먼저 이 법이 참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지부장으로도 봉사를 하고 세번이나 워드 감독을 역임하고, 스테이크 부장을 한번, 선교부장을 두번, 그리고 교회의 관리 감독으로 14년간 봉사하면서 나는 십일조 기록을 수없이 정리하였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십일조를 바치면 복음상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참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재정법칙

특히 이 말일에 주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십일조의 법을 내려주신데는 커다란 두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 교회를 운영하는 가장 공평한 법칙으로서 누구든지 개인의 능력에 의거하여 이 재정에 참석하는 까닭에 과부의 동전 한푼이 곧 부자의 금화와 같습니다.

둘째: 주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절치는 시금석으로서 십일조의 법에의 순종은 반드시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므로 십일조의 법은 곧 주님의 백성을 위한 축복과 보상의 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조리 서부에서 1838년 7월 선지자 요셉 스미스는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달 받았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는 십일조로서 당신 백성의 재물에서 얼마큼을 요구하시는지 당신의 종에게 보이소서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사람들이 모든 잉여 재산을 시온에 있는 나의 교회의 감독의 손에 바칠 것을 요구하노라.

이는 나의 집을 건축하며 시온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신권을 위하여 나의 교회의 대관장단의 빛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니라.

이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시작이 되리라.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이후부터는 매년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 중 십분지 일을 바치라. 이로써 나의 성신권을 위하여 저들이 지켜야 할 영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땅에 집합하는 모든 자는 저희 잉여 재산을 십일조로 바쳐 이 율법을 지키지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거함이 합당하지 아니 하느니라.

만일 나의 백성이 이 율법을 지켜 기록하게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또 이 율법으로써 내게 시온의 땅을 기록하게 하지 아니 하거나 나의 율례와 심판으로써 이를 지켜 그 땅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하지 아니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땅은 너희에게 시온이 아니니라.

이는 모든 시온의 스테이크에도 한 예가 되리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교성 119)

십일조의 목적과 용도

성도들이 미조리 땅에 시온을 건설하려 했을 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좇아 잉여 재산을 모두 시온 교회의 감독에게 바쳤습니다. 이때로부터 성도들은 이 법을 이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율법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먼저 이를 실행한 연후에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이후 부터는 매년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 중 십분지 일을 바치라. 이로써 나의 성신권을 위하여 저들이 지켜야 할 영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교성 119 : 4)

이 계시 속에 주님은 십일조의 사용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이는 나의 집을 건축하며 시온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신권을 위하여 나의 교회의 대관장단의 빛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니라.” (교성 119 : 2)

나아가서 주님은 십일조를 취급해야 할 사람에 관한 지시도 내려 주셨습니다.

“.....나의 교회의 대관장단과 감독과 그의 평의원과 나의 고등 평의원으로 구성된 회의로서 십일조를 처리할 시기가 이르렀느니라. 이는 저들

에게 고하는 나의 음성으로써 해야 하느니라……” (교성 120)

1831년 9월 11일 오하이오주 커티랜드에서 선지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 보면 십일조의 법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주님은 간결하게 설명하고 계시다.

보라 인자가 올때 까지는 오늘이라 부르리니, 진실로 지금은 희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날이다. 십일조를 바치는 자는 인자가 올때에 불에 타지 아니 하리라”(교성 64 : 23)

천지와 그 안에 가득한 만물을 창조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가 충실하기만 하면 “땅을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조금도 협조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불에 타는 편을 택할 지언정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주를 마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위해서 아무것도 지불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사람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사는 몇평 땅 값을 여러 해로 나누어 갚는 예는 허다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상속물을 놓고 인간은 관심과 흥미를 댄 곳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까?

십일조를 내므로써 신앙이 발전

주는 세상 사람이 세상적인 요구를 억누르고 자기 욕심을 버릴때 신앙이 자라며 순종함으로써 신앙으로 크게 발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자녀들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시험하시고자 실제로 교회가 재정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때라도 이러한 희생의 법을 내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도 희생의 법이 주어졌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살아 연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 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앞드르느니라. ……” (창세기 4 : 3—7)

주님이 가인의 들에서 나는 열매나 아벨의 가축의 첫 새끼를 필요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시로 삼고자 했을 뿐입니다.

창세기의 윗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벨은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가축 중에 “첫 새끼”를, 그것도 살전 마음으로 택하였고 가인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 그대로 행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값진 진주 모세서 5 : 18을 참조)이로 인하여 주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열납하신 것이며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열납하지 아니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인은 분노하였고 그의 안색은 변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가인은 흑심을 품었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젊고 부유한 청년이 자리를 함께 했을 때 그리스도가 겪으셨던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제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마

태 19 : 16—18)

그러자 그리스도는 십계명을 들려 주셨으며 이에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 그 청년이 가로되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아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오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 자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리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마태 19 : 20—22)

부자 젊은이가 한 말을 주의해 봅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리까?” 이에 예수께서는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젊은이가 그리스도께 그러한 일을 다 행하였노라고 하자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셨다”고 마가는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는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랑하시나 “제가 무엇을 더 하여야겠습니까?”라고 물은 청년에게 완전의 법을 가르치시고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기를 원할진대 가서 소유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너의 재물이 하늘에 쌓이리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젊은이는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슬퍼하며 돌아갔으니 이는 그가 부자였음이라”(마태 19 : 22)

여기서 보면 구세주는 젊은이에게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가진 바 재산과 시간을 다 버리고 와서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일에 다시 이 지상에 회복되었었습니다. 완전히 전혀 기약되지 않았던들 우리에게 많은 것

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상기해 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 5:48)

돈 많은 젊은이가 어떻게 하였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결합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 6:24)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으며 “하나님께서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열납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마음 속으로 세상의 것에 대한 애착을 더 가졌으며 그리하여 그의 제물은 열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돈 많은 젊은이는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여 자의로 선택한 세상의 길로 “슬퍼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보다는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있음을 증거했으며 예수가 가르치시고자 한 완전의 법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들어내 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 만민에게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 6:31-33)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십일조의 법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십일조의 법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이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자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절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십분의 일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히브리 7:1-2, 4)

주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레위기 27:30)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십일조를 먹으며 또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배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명기 14:22-23)

“주 너희 하나님을 항상 경외함을 배우라는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역대하 31:5)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9)

야곱은 소득의 십분지 일을 빠짐없이 바치기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8:22)

레위 자손들도 십일조의 법을 배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히브리 7:5)

현대에 있어서의 법에의 대항

말일 성도가 맨 처음 십일조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부분으로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십일조의 법이 모세의 율법에 속한 것이며 예수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졌다 하여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분명히 명기되어 있으며 십일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 (마태 23:23, 눅 11:42)

그러나 십일조의 반대는 이제 끝났으며 많은 교회에서 십일조의 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로 신통한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인용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써 그의 선지자에게 “영원히 지킬 법으로” 전해 주신 십일조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

관리 감독단이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



금식

● 운동 선수들은 자주 차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도 더해질 수 있는 저력 내지는 제이의 체력에 관하여 자주 이야기 한다. 농구 선수의 예를 들어 이야기 해 보면 힘이 다하여 지칠대로 지쳐 있는데 계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더욱 허리띠를 동이고 분발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닦혔다고 하자. 이런 경우 다시 힘을 모아 코트로 뛰어나갔다면 이때에 발휘되는 힘을 저력이라던지 제이의 체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힘은 운동 선수가 최선을 다한 후에도 더 힘을 내지 않으면 구현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리는 복음 가운데서의 금식의 원리와도 상통하는 점이 있다. 금식과 기도는 우리에게 높은 차원의 의지와 힘을 갖게 해주며 만일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몸을 가누지 못할 것이다. 금식과 기도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며 우리가 능히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받기에 합당한 신앙을 허가해 준다.

구세주는 이러한 원리를 아주 명백하게 설명해 주셨다. 한번은 잠귀에 들린 아이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와서 잠귀를 쫓아내 달라고 간청한 일이 있다. 제자가 이 일을 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구세주에게 와서 이 일을 부탁하였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

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병어리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 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 9 : 20~29)

금식과 기도는 우리가 겸손하였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갖게 해준다. 세상에는 금식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 금식을 배고프게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를 있다. 그러나 금식은 기쁨을 가져다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이것이 금식이요 기도니 다시 말하면 기쁨이요 기도니라.”(교성 59 : 14)

이사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기쁨을 찾으리라.....”

(이사야 58 : 3)

금식은 고부적이며 긍정적인 체험을 쌓아 준다. 우리의 삶과 사고를 하나님의 것에 부합시키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금식은 또한 우리를 스스로가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준다. 금식은 자의적인 원리이며 젊은 남녀에게는 자기의 욕구와 감정을 극기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윌리엄 죠지 풀단은 “자기를 이기는 왕도”라는 자기를 조종하는 법에 대한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매일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하므로써 정신 훈련을 쌓도록 하자.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촉발되는 경솔한 행동은 피할 수 있게 된다. 훈련은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한다. 드릴에 찬 흥미 진진한 소설의 대목을 읽다가 잠시 책을 덮던가 건강이 허가한다면 전차나 버스를 타고 가겠다는 욕망을 누르고 집에까지 걸어보라. 혹은 얼굴조차 마주보기 싫은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 보고 될 수 있으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도록 노력해 보라. 이러한 훈련을 계속한다면 인간성 전체가 훌륭하게 다듬어 질 것이다. 사람은 작은 것에서 극기하는 법을 배움으로서 큰 것에서도 극기할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또 다른 금식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한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사야 58 : 6-7)

그가 이야기하는 “무거운 멍에의 줄을 풀려주며” “흉악함의 결박을 풀다”는 말이나 “모든 멍에를 부순다”는 말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며 헛되고 교만하기만 하여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오직 스스로 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나 이웃은 말끔히 잊은 상태를 뜻하는듯 하다. 금식의 진정한 목적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와 부합되는 것이다.

“.....너는 내어 쫓긴 가난한 자를 데려오지 않겠느냐? 헛벗은 것을 보거든 입히라. 너희 몸이 드러났을 때 너희는 이를 가리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금식 헌물의 원리는 교회의 젊은이 여러분에게 궁핍한 자를 위하여 가진 것을 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더럽혀 지지 않은 참된” 종교의 정신으로 그 환경과 처지가 여러분처럼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에머슨의 이야기를 자주 인용하셨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계속하여 수행하고자 노력할 때 그 일은 아주 쉬워진다. 일의 내용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발전되기 때문이다.”

○

병 든 양심의 치료

리차드 엘. 이반스

“양심의 소리는 정묘하여 쉽게 다른 것에 가리어 질 수는 있으나 너무 분명하여 여간해서는 잘못 들리는 법이 없다.”고 불란서 작가 스타엘은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푸란씨스 보우엔은 “양심은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거룩한 이의 음성” 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양심의 소리는 내부의 소리이면서 외부의 소리입니다. 죠지 크랩은 “양심은 인간 영혼의 가장 충실한 친구로서 비평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이끄는 것”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저 외면하여 양심을 묵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것으로 간주하던가 짓눌러서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자들은 삶의 우아함이나 하나님이나 이웃의 용납과 능히 얻을 수도 있는 평화를 상실하고 맙니다. 양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댓가를 지불합니다. 양심이란 신경 조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진리를 전해

주지 않으며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손을 벌려 얻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 손으로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에 항거하여 싸우는 사람은 내면으로 변합니다. 우주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리를 변경하려 하거나 계명을 거부하거나 도덕과 영원을 외면하거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준 사명감을 거역할 길이 없으며 하나님의 속삭임을 외면할 수도 없으며 설혹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선한 것을 좇지 않을 때의 고뇌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지 못하며 우리는 양심의 소리가 심판자로 임하기 전에 친구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병든 양심을 치료하는 유일의 방법은 우리가 나쁘다고 알고 있으면서 계속하는 행동을 멈추는 일이며, 알고 있으면서 이행하지 못하는 선행을 과감하게 시작하는 일입니다.



● 젊은 남녀의 관계, 군복무, 대학 진학, 취직, 대인 관계에서의 인기등이 현대의 젊은이의 관심사일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젊은이는 지난 몇 세대의 젊은이가 그러했듯이 사회문제에 민감하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그들이 들은 이상적인 세계의 무대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너무 넓은 계곡을 사이로 한 채 격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수천년을 두고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경전을 펼칠 줄 알며 그 안에서 시대의 고난과 뒤틀린 삶을 사는데 필요한 도움을 얻는 것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구약 성경이 큰 안내자가 될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난관 속에 살았던 역사상의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필요한 해결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성경에 소개되는 선조들의 잘못을 거울삼아 그들의 훌륭한 점만을 본받아야 할 것이며 이로서 주어지는 보상이 높은 차원의 기쁨을 쟁취해야 할 것이다.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하여

어려움과 혼란에 쌓인 세상을 살면서 도움을 구하는 젊은이에게 구약의 드라마는 옛 선지자들이 부르짖은 신앙과 소망을 허가해 줄 것이다

그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3절

케네드 더블유. 고드프레이

성경의 첫번째 장에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며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주의길에 창세기를 읽으면 위대한 교훈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아담과 같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라는 계명을 받았다. (창세기 1:28을 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은 정연하고 아름답다. 아직도 이 자연에 대한 음악은 작곡되지 않았고 위대한 작품은 집필되지 않았으며 인간의 관계는 온전히 계발되지 않았다. 인간은 연령의 고향 간에 신과 더불어 더 아름답고 의미깊은 세상의 창조의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왜" 사나

들지기 아모스는 오늘날의 젊은이들 처럼 테코아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며 시대의 질병을 통탄해 하고 있었다. 여자는 온통 사치로 휘감고 밤이 늦도록 먹고 마셨으며 더구나 이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이 늙은 목자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

산을 모아 부자가 된 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는 슬퍼하였다. “사람들은 공의를 배척하고 뇌물을 먹고 가난한 자를 외면했던 것이다……”(아모스 5:12)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한심해 질 때 아모스는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선지자나 선지자의 아들조차 되어 본 일이 없는” 아모스는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심각한 태도로 받아드렸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용감하게 그의 멧세지를 전파하였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니……”(아모스 5:14, 15)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찌로다.”(아모스 5:24)

결국 아모스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한 사람의 도움을 무기로 사람들을 악에서 전혀 의로움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였다. 비록 그가 실패하는 했으나 아모스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음을 알았고 그의 양심은 깨끗하였다.

그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인생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명예롭게 살고 명예롭게 죽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사무엘, 엘리야등(이 밖에도 많겠지만)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모범은 가히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의 생활의 지표가 될 만하다. 주님의 계명을 받았던 예레미야의 예를 살펴 보기로 하자.

“너는 여호와와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 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 전이라, 여호와와 전이라 여호와와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리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 하며 다른 신들을 좇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예레미야 7:2, 4-7)

애굽과 바벨론을 평정하려는 사악하고 어리석은 외국 정책에 항거하여 예레미야는 황소 멧을 메고 예

루살렘 거리를 지났다. 결국 그는 그렇게 한다하여 감옥에 갇혔으나 후에 풀려 나왔고 그 다음에는 애굽으로 잡혀 가 그 곳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죽었다.

두개의 견해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가 다 백성들에게 거부된 것은 아니다. 용기의 주인 엘리야는 바알신을 믿는 간악한 제사 400명과 그의 추종자를 갈멜산에 모아 놓고 이렇게 외쳤다: “……너희가 어느 때 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찌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열왕기상 18:21)

바알신을 따르는 제사를 움직이려는 그의 시도가 여의치 않음에 그는 하늘로부터 불을 불러 제단과 그 앞에 놓인 제물을 삼켜 버리게 하였다. 이는 오로지 예레미야의 극진한 신앙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로부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이 다시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았고 비록 죄를 짓기는 하였으나 여호와와 저희의 하나님인줄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잘 연구하므로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그들의 실패까지도 훌륭한 교훈으로 삼아야겠다. 이는 그들의 용기 하나로도 이미 우리를 감화하기에 충분하겠기 때문이다.

젊은이를 위한 지표

구약을 통하여 젊은들은 또한 전 인류에게도 도움이 되는 직업을 선택하는 용기를 얻게 된다. 교리와 성약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였다……땅 아래의 일과 [지질학] 과거의 일과[역사] 현재의 일과 [시사]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과[예언]……외국의 일[국제문제]과……여러나라 [지리]에 대한 지식도 배우라. (교성 88:79) 잠언에도 적어도 아홉 번 인간이 지혜와 지식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 일 예를 들어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잠언 3:35)

구약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의 직업은 다양하다. 아벨은 짐승을 치는 자였고, 아브

라함은 천문에 밝았으며, 모세는 생물학을 알았고 그의 장인 이드로는 인간 관계와 심리학에 조예가 깊었다. 엘리사는 약을 알았고 다윗은 군대의 장이었다. 이사야는 정치가였고 정략가 였으며 귀공자였다. 기드온은 농부였고 요셉은 애굽에서 뛰어난 정치가로 각광을 받았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들의 직업이 이토록 다양한 것을 보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직업에 관계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젊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겠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선도하면서 일할 수 있는 성스러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겠다.

도덕과 가족 명예의 기초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도덕적인 순결의 핵심과 골자가 담겨져 있다. 집을 멀리 떠나 낯선 사람들 틈에 낯선 풍속에서 좌절되고 때로는 두려움에 살면서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는 주인의 처로 부터도 많은 유혹을 받았다. 요셉이 그 지상의 아비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과 더불어 나눈 언약을 알지 못하는 주인의 아내는 계속하여 요셉을 꾀었다. 이와 같은 더러운 꾀임에 대하여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세기 39:9) 보디발의 사악한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고 그는 조용히 옥에 갇혔으며 거기서 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보였다. 과연 오늘날의 젊은이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본보기가 아니겠는가!

구약 성경은 젊은이들이 마땅히 그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돌보고 존경하며 부모님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의 이름을 빛내야 함을 가르친다. 시내산에서 주는 천둥같은 소리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다. 잠언에는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잠언 15:5)고 되어 있다. 잠언의 다른 곳에는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 할찌어다”(잠언 23:26)라고 기록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임을 거듭 거듭 강조하여 왔다. 그러므로 자기 가문의 이름을 빛낼 거룩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구약에 보면 부모의 훈계를 따르지 아니하여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에 빠진 자식들이 슬

퍼하고 애통해 하는 기사가 있다.

죄로 인한 자책감은 다윗의 위대한 기도로서 어느 정도 안위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시편 51:1~2) 이 시를 읽으면 삶 그것 처럼 절실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느끼게 된다.

신앙의 생활

구약에는 또한 난립된 종교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요소도 어느 정도는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젊은이는 불타는 숲에서 모세와 더불어 거룩하신 지존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밤에는 사무엘과, 작고 잠잠한 소리는 엘리야와 듣고 읊과 더불어는 태풍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다윗 왕과 더불어는 깊은 울림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을 일단 찾은 다음에 젊은이는 사무엘 처럼 외칠 것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사무엘상 3:9)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간증은 창세기의 첫절에서 시작하여 성경 어느 페이지에나 다 기록되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슬픔과 고난과 비운에 우는 선한 사람을 볼 때에 젊은이는 읊과 더불어 통곡할 것이다. 고난과 슬픔과 불행은 언제나 파오로 인한 것이겠는가? 읊기에 보면 선한 사람도 비운을 겪는다고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고난 자체는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구별짓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를 선한 사람으로 혹은 사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혹은 죽고 혹은 상처를 입고 혹은 비운을 맞게 될 때 젊은 이들은 도무지 이러한 처사를 이해하지 못하여 통곡한다. 읊기에 보면 태풍에 잠긴 주님의 음성, “신앙을 가지라”는 주님의 음성이 울려 나온다.

어찌하여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간악한 백성과 나라가 번창하는 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주께 왜 선한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갈테아, 그 사악한 나라는 번창하는 가를 물은 하박국의 기사를 인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주가 택한 나라는 쇠퇴하는데 사악한 저주의 나라는 번성한다. “공의로운 자는 신앙으로 살찌니라”(하박국 2:4)는 말씀을 우선 기억해야 겠다.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

호세아는 사랑이 모두를 가능하게 한다고 이야기한다. 잘못으로 비극과 슬픔과 삶의 심장 마비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약속을 얻는다.

주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베푼 위업을 알려 주신다. 주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에서 구하였고 어떻게 광야를 안전히 지나게 하였나를 알려 주신다. 그랬는데도 주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가 주는 인간이 저지른 죄를 일깨우시고 이들의 비행을 슬퍼하신다.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사랑의 줄로 저를 이끌었고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호세아 11:1~4)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였어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간청하듯, “너를 도와주는 나”(호세아 13:9)라고 하셨다. 마지막에는 기쁨의 함성으로,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호세아 13:14, 14:4, 5)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의 전주곡과도 같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 8:38-39)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약속된 은사와 혹 죄악이나 “패역”이나 그 밖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날의 젊은이에게 구약 성서가 전하는 마지막 멧세지 일 것이다. 군인 영장을 받거나 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기의 인기가 염려되고 남녀 관계가 여의치 않을 때, 오늘의 먹구름 현실에 대한 회의가 물려올 때 어찌 구약에서 대답을 얻으려하지 않겠는가? ○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삶을 얻게 하러 함이니라

리드 에이치. 브랫포드



● 나는 최근 아직 젊은 나이에 대성한 어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또한 신중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능력과 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고 그는 술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의 목표를 신중하게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부딪치는 파도와도 같습니다.”(야고보 1:6) 바뀌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므로써 자기들의 목표를 이룰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와 유대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내가 온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0:10)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의 심장한 의미를 깊이 깨닫는다면 주께서 허가하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쟁취하겠다는 결의와 요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지가 정하는 목표가 중요하지만 다만 우리의 이지보다 때로는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나 영적인 요소를 중시하여 바른 목표를 세우도록 해야겠습니다.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이란 무엇인가?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 1:39)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허가하는 풍성한 삶의 무한한 숨결과 깊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어떤 삶을 살던지 그것이 가져올 결말에 대하여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의 순간적인 요구를 거부하고 최후의 목표를 지향하도록 해야 함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물질 밖에 두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소용”(마 16:26)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하고 이루어야 할가를 결정해야 하며 무엇이 자기에게 가장 온전한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위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제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마가 10:17-23)

목표달성을 저해하는 그릇된 선택

돈 자체는 사실상 악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돈은 우리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러나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돈이 인생의 궁극의 목표가 되어 버리고 진정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과 정력을 쏟을 수가 없게 됩니다.

“부를 찾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보라 하나님의 섭리가 너희에게 알려질 것이요 이로서 너희는 부하게 되리라 보라 영생을 가진 자가 곧 부한 자니라.”(교성 6:7)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본보기는 절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자 했으며 루시퍼의 간계에 따를 때 생길 제한과 제약을 아셨습니다.

희랍 사람들은 무지가 활동의 한계를 제한 하는 까닭에 죄가 된다는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힘을 발하게 되며 우리의 활동 반경은 몇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잠재 능력을 발전시키기만 한다면 남과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느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

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 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음이니……”(교성 58 : 27—24)

풍성한 사랑=풍성한 삶

구세주는 가장 큰 영적이고 감성적이고 지적이며 사회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 가시고 나서 바로 그리스도는 물려온 사람들에게 이와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마태 22 : 35—39)

이러한 위대한 원리의 내용에 접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할 때 인류가 서로 주고 받으며 사는 대사회의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평범한 이야기 입니다만 하나와 하나가 합하면 둘의 힘이 나오지만 둘과 둘이 합하면 넷보다 더 큰 힘을 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사랑을 더욱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구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요한 1서 4 : 9)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당신처럼 되게 하시려고 고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베게 이르노니, 나를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리라……(교성 11 : 30)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인간에게 허가하시는 또 다른 은사는 바로 신권입니다. 이 신권으로서 참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얻습니다. 엘마의 회개에 대한 깨달음 같은 것을 거듭남으로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

하여 내가 맛본 무한한 기쁨을 저들이 또한 맛보게 하며 저들도 역시 하나님께로 태어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쉬지 않고 일해 왔느니라.”(앨 36 : 24)

이러한 의미의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신앙과 아울러 사랑과 근면, 인내, 겸손, 관용, 친절, 덕성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회개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위대한 원리를 가능케 하는 다음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요한 14 : 15—17, 23)

은사의 보답

그리스도가 허가하시는 “풍성한 삶”은 화평과 성실과 기쁨과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보답으로 드려야 할 것이 많겠지만 첫째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상하고 깨끗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한 1서 3 : 3)

둘째로 예수의 말씀 대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 5 : 16)

우리가 늘 가르침의 기회를 구할 때 모든 “사람에게 빛을 전해 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해와 동기를 불러 넣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엘마처럼

“……나는 주가 마지막 날에 나를 들어 올리사 그와 함께 살게 하시려 함을 아노라……”(앨 36 : 28)고 이야기 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참으로 영원한 시간을 두고 풍성하며 깊이가 없는 사랑과 끝없는 성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새로운 해 또 새로운 십년

● 1970년! 또 새로운 십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60년대는 가 버렸습니다. 이는 묵은 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해를 맞는 것 이상입니다. 새로운 십년의 시작입니다.

해가 바뀐다는 말은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과 결심을 굳게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년대는 교회와 한국 땅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설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선교부가 정식으로 발족한 때가 역시 이 60년대였습니다. 선교사가 파견되어 회원의 숫자를 늘였는가 하면 그 수에 있어서나 조직면에 있어서 크게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과거를 반성하고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계획하고 전망해 보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십년이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에 어떠한 결과를 부여할 것인가? 충실한 회원의 수가 늘 것인가?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고 견디며 그리하여 참으로 십년만한 가치의 발전을 이루어 놓을 것인가?

우리는 이 새로 맞는 십년을 발전과 향상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곁으로 매일 진군하여야 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삶을 영위하여야만 합니다. 신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설정해야 할 위대한 목표입니다.

저는 올 일년을 “물론경의 해”로 정하고 싶습니다. 너무도 의미가 깊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 형제에게 물론경은 지상의 그 어느 책 보다도 정확하며 우리의 종교의 반석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또한 이 책의 훌륭한 말씀에 좇아 살면 하나님 곁에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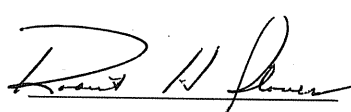

저희들은 이미 하루에 몇 페이지씩을 정해놓고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며, 기도하자는 계획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갖는 가정의 밤 교재 공과도 역시 물론경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올 해는 위에 말씀드린 복음의 반석을 생을 인도하는 빛으로 삼자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교회의 진실성과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다는 간증을 뜨겁게 느낄 때 모르나이가 모르나에서 10장 4절에 피력한 바 확신을 자신

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태도를 아울러 갖추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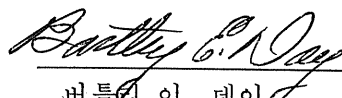
그러므로 새해를 맞으면서 물론경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깨달은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 보다 더 가까운 자리로 갈 결심을 단단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자께서 주신 인도와 지시를 본보기로 살아 삶을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 : 38—39)고 한 바울의 신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 모두에게 새해 인사를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복음을 통한 화평, 즐거움과 행복을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 탁월 10년 동안에 더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스러운 사명을 띠고 이 지상에 오셨으며 오늘 날에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의 위치에 서 계시며,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과 살아 계신 예언자를 주셔서 이 지상에 세워진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일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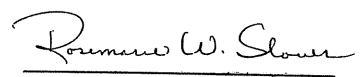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선교부장

이 호 남
제일보좌



버틀리 이. 데이
제이보좌



로즈마리 더블유. 슬로버
선교부장 부인

회원이 되심을 축하합니다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9/6	정수	남 57	남	대전	"	정용	금 11	여	전주	"	맹송	국 9	남	전주
"	변선	남 15	여	대전	"	정용	금 8	여	전주	"	맹진	국 14	남	전주
"	최순	남 54	여	부산	10/4	민병	철 19	남	녹번	10/25	김기	학 20	남	대전
"	장창	남 14	남	부산	"	장대	현 20	남	녹번	"	이세	근 35	남	영등포
"	정원	태 20	남	부산	"	백대	현 21	남	녹번	"	김영	화 17	여	영등포
"	조정	애 17	여	부산	"	임승	진 14	남	녹번	"	김석	호 18	남	영등포
"	이화	자 9	여	대구	"	박용	찬 22	남	녹번	"	박성	억 21	남	영등포
"	이명	숙 10	여	대구	"	박주	태 17	남	녹번	"	장세	정 15	남	서부
"	이은	희 10	여	대구	"	정진	구 17	남	녹번	"	유혜	영 15	여	동대문
"	이귀	자 12	여	대구	"	홍재	일 22	남	청운	"	김기	영 18	남	성북
"	곽영	실 13	여	대구	"	최영	희 13	여	청운	"	한성	수 14	남	성북
"	김영	자 18	여	대구	"	이재	희 16	남	청운	"	여성	길 14	남	성북
"	박용	기 21	남	대구	"	박승	철 15	남	동대문	"	김양	문 12	남	성북
"	김태	경 16	남	대구	"	김지	화 15	여	동대문	"	김만	근 30	남	녹번
"	김혜	자 26	여	광주	"	이태	식 18	남	삼청	"	정문	역 26	남	녹번
"	최화	영 17	여	광주	"	최승	민 13	남	성북	"	김우	경 15	여	녹번
"	김해	자 33	여	광주	"	윤영	화 21	여	성북	"	황인	숙 15	여	녹번
"	김성	자 12	남	광주	"	김진	식 14	남	성북	11/1	김옥	열 19	여	대구
"	김성	미 9	여	광주	10/11	김기	영 15	남	청운	"	배신	희 11	여	대구
"	문현	덕 14	여	광주	"	강봉	주 14	남	서부	"	배석	원 9	남	대구
"	김영	미 14	여	광주	"	운경	로 16	남	삼청	"	배석	민 9	남	대구
"	이용	경 23	여	광주	"	운경	자 13	여	삼청	"	나영	숙 8	여	동구
"	손명	자 14	남	광주	"	민동	배 15	남	삼청	"	나경	환 11	남	동구
"	손도	자 22	여	광주	"	신동	배 15	남	삼청	"	최화	신 15	여	동구
"	이월	선 19	여	광주	"	하영	회 17	여	부산	"	김현	애 16	여	동구
"	양현	섭 17	여	삼청	"	구신	옥 23	여	부산	"	차재	익 17	남	부산
"	임중	근 19	남	녹번	"	장애	숙 20	여	부산	"	함외	선 16	여	부산
"	김정	일 12	여	청운	"	김초	순 44	여	동구	"	전정	원 14	여	부산
"	박순	구 26	남	청운	"	조정	호 17	남	동구	"	차봉	익 14	남	동구
"	육경	남 28	남	청운	"	강진	대 20	남	동구	"	배미	순 22	여	부산
"	이희	일 31	남	신촌	"	김태	진 12	남	동래	"	조우	형 8	남	부산
"	오형	근 15	남	서부	"	전금	자 33	여	동래	"	김선	웅 17	남	광주
"	이안	원 17	남	서부	"	박명	회 22	여	동래	"	이동	숙 14	여	광주
"	하명	회 15	여	서부	"	김문	선 23	남	동래	"	임경	자 17	여	광주
"	김영	철 21	남	서부	"	진인	우 19	남	광주	"	박동	수 17	남	광주
"	연명	애 17	여	서부	"	김옥	순 18	여	광주	11/15	김덕	업 34	여	광주
"	임정	숙 15	여	영등포	"	김중	실 17	남	광주	"	김광	회 15	남	광주
"	박정	형 39	여	영등포	"	황우	선 17	남	광주	11/17	이진	수 12	여	전주
"	백운	효 9	여	영등포	"	양정	숙 59	여	광주	"	홍선	회 14	여	전주
9/15	윤성	우 28	남	전주	"	김옥	산 21	남	광주	11/28	추수	자 20	여	춘천
"	국성	중 40	여	전주	10/20	이연	남 12	여	전주	"	유재	혁 17	남	춘천
"	정용	자 14	여	전주	"	모규	연 17	남	전주	11/30	이용	현 8	남	삼청
					"	임병	욱 30	남	전주	"	박영	란 19	여	삼청
											김인	숙 21	여	삼청

이상 138명

교회 서적 안내

품 목	구 분	사용처	단가
	□ 일 반 □		
물문경 (가죽표지)	경 전	일 반	1,200
물문경 (보급용)	경 전	일 반	150
교리와 성약 (가죽표지)	경 전	일 반	600
" (보급용)	경 전	일 반	300
음악에 관한 지시사항 1968	지침서	일 반	60
교회 일반 지침서	지침서	지방부장단 지부장단	무료
스테이크 선교사를 위한 제언	교 재	선교용	무료
	□ 신 권 회 □		
신권회 선교사 지침서	지침서	신권회	무료
아론 신권 지도자 지침서 1967	지침서	아론 신권	무료
신권회 제사반 공과	교 재	아론 신권	250
불멸과 영생	교 재	멜기세덱신권	140
	□ 계 보 □		
신권회 계보 지침서	지침서	계 보	무료
신권 계보 위원회 프로그램	소책자	계 보	무료
	□ 가정 복 음 □		
신권회 가정복음	지침서	가정복음	무료
가정복음 교육에 있어서의 신권 협의회	지침서	가정복음	무료
가정의 밤 교재 1970	지침서	일 반	70

품 목	구 분	사용처	단가
	□ 주 일 학 교 □		
주일학교 지도서	지침서	주일학교	200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	주일학교 교사지도서	주일학교	200
교사 훈련반 공과	교 재	주일학교	250
주일학교 서기 안내서	지침서	주일학교	140
말일성도란?	교 재	야고보반	300
복음의 멧세지	교 재	복음의 멧세지반	150
교리와 성약의 가르침	교 재	기초교리반	200
신약의 가르침	교 재	요한반	100
주일학교에서의 운영 프로그램	지침서	주일학교	50
	□ 상호 부조회 □		
상호 부조회 지침서	지침서	부조회	140
상호 부조회 보조자료	교사 보조자료	부조회	70
	□ 상호 향사회 □		
상향회 공과 제2권	교 재	상향회	300
	□ 유년 주일학교 □		
어린이 찬송가	찬송가	유년 주일학교	340
복음에서 자라는 어린이	교 재	유년반	250
사랑의 복음	교 재	유치반	150
초등협회 경건 프로그램 69-70	교 재	초등협회	180
초등협회 교사 안내서	지침서	초등협회	40

○ 서적의 구입은 선교부의 번역출판부 혹은 각 지부장님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삼청지부

1969년도에 26명의 새로운 회원을 맞은 삼청지부는 1969년도의 목표인 출석율 배가의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올해의 목표를 지부 건축의 해로 정하고 단결, 협동, 사랑을 외치고 있다. 사진: 올해의 목표인 "지부 건축의 해"를 다짐하는 회원들. 삼청지부는 이 사진으로 카드를 만들어 군문과 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했다.

성복지부 →

성복지부 상향회 음악 교사인 조인숙 자매는 지난 11월 8일 오후 7시 30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졸업 연주회를 가졌다. 성악을 전공한 그는 선교부장을 비롯한 성도들과 친지들의 축복을 받으며 그 간에 쌓은 실력을 발표했다. 사진: 졸업 발표를 하는 조자매



진 리 의 말 씀

리차드 엘. 이반스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모

이미 오래전에 인간에게 전달되어 기억의 깊은 곳에 묻힌 하나님이 주신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너희에게 허가하시는 땅의 날이 길리라.” 여기에 쓰인 공경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조화하고, 절조를 지키고, 돌보고, 보람되게 살고, 의롭고, 도덕적으로 사는 등등으로. 공경한다는 말은 또 이미 부모님들이 배워 터득하신 교훈을 배우고 그분들이 범한 과오를 피한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평화롭고 행복된 삶을 오래 누리며 마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입증되었으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두어야 할 문제입니다. 아직도 나이가 어린 젊은이의 경우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 막 결혼한 사람, 어린 자녀를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엘돈 테너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주의해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공경해야 할 부모는 바로 태어나 여러분의 것이 될 자녀의 부모들입니다. 태어날 아이가 가장 훌륭한 부모에게만 맡겨지듯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될 아이들의 부모를 공경한다!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한 일임을 깊게 생각해 야 합니다. 이상이 하나가 되어 장차 태어나는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녀를 위하여 배우고, 일하고,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겠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경건하며, 친절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야 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과 이해와 의무와 존경으로 정리된 가정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역시 기억해야 겠습니다. 자식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사랑해 주며, 보다 선한 삶으로 이끌어야 겠습니다. 젊은 어머니, 젊은 아버지들—그리고 아직 결혼을 결정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처럼 공경해야 할 부모는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될 아이들의 부모들입니다. 태어날 아이가 가장 훌륭한 부모에게 맡겨지듯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은 유명한 물몬 태버나클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 키로 싸이클의 서울 중앙 방송국 제2 방송국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560 키로 싸이클의 AFKN에서도 매주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